

공무원 갑질 근절 '청렴 순천' 만들기 박차

순천시, 행동강령 개정...갑질행위 금지 규정 마련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 문책 등 공직기강 확립키로

순천시가 '청렴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시는 최근 일상생활의 행복을 침해하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를 갑질의 개념으로 정립했다.

행동강령에 5가지 유형의 갑질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공무원이 인가·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금지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또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공무원이 피감독

기관에 업무나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공무원이 피감독기관의 권리·관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도 해당된다.

시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부적절한 해외연수 등의 갑질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피감독기관에 해외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 요구와 과잉 의전 제공 요구 금지, 피감독기관의 거부무응답을 신설했다.

만약 피감독기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공무원의 요구가 계속될 경우 피감독기관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 및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명문화하고, 피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부당한 요구를 한 소속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그동안 민선 7기 출범 후 생활적폐 청산 차원에서 공공분야의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시장실·감사실·소통하우스·화장실 입구 등에 신고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



순천시가 '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등 청렴문화 만들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열린 정례대회에서 허석 순천시장은 갑질근절과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주문했다. <순천시 제공>

며,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장의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의지도 확고하다.

허석 순천시장은 최근 4월 정례회를 통해 전 직원들에게 직장 내 3대 갑질 행태인 금품·향응 수수, 성희롱·성폭력 및 부당지시를 지적하면서 수평적 리더십을 통한 갑질 근절 및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주문했다.

허 시장은 "수평적 리더십을 통한 갑질 근절 및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원인을 가족처럼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해 시정 만족도를 견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조직 내 금품·향응 수수, 성 관련 비위행위 등 갑질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문책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정원문화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다

20일 정원의 날 기념행사 음악회·세미나 등 다채



순천시는 20일부터 이틀간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에서 '정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정원의 날'은 순천시가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 날인 2013년 4월20일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정원문화·산업 중심지로서 순천이 남긴 족적과 각오를 재조명하는 기념행사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에 기여한 각 분야 관계자들을 초청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은 정원음악회를 시작으로 정원의 날 소개, 정원 퍼포먼스, 정원 다큐멘터리 상영, 정원 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과 함께 잔디마당 인근에서 정원문화마켓을 운영하는 등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순천시가 그동안 축적해온 다양한 정원문화

구분	일시	장소	주요내용	비고
1차	19일 14:00	순천만	정원음악회	정원문화
2차	19일 18:00	순천만	정원 퍼포먼스	정원문화
3차	20일 10:00	순천만	정원 세미나	정원문화
4차	20일 14:00	순천만	정원 다큐멘터리 상영	정원문화
5차	20일 18:00	순천만	정원 음악회	정원문화
6차	20일 19:00	순천만	정원 세미나	정원문화

를 전파할 예정이다.

21일에는 개방정원을 탐방하는 '열린정원 여행'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정원의 날 제정 5주년이자 '순천 방문의 해'라며 "올해 기념행사를 계기로 정원문화·산업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정원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포스코, 해룡산단 마그네슘 공장 매각 검토

중기 매각·공동투자 운영 등 고심 시,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 비상

포스코가 순천 해룡산단에 들어선 마그네슘 공장의 매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포스코와 순천시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해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경영 개

선과 사업 최적화를 위해 해룡산단에 있는 마그네슘 공장 매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포스코는 마그네슘 공장을 관련 중소기업에 매각하거나 공동투자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2007~2016년 917억원을 투자해 연간 600mm의 협폭 판재 670t, 2000mm 광폭 판재 6400t을 생산하는 설

비를 구축해 가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그네슘 클러스터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선 순천시는 포스코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포스코가 사업을 철수하더라도 글로벌 연구센터 구축을 위해 국비 12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하는 등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마그네슘 공장 설비가 알루미늄도 생산할 수 있어 포스코가 매각

을 결정하더라도 설비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매각 이후에 생산성이 높은 회사가 공장을 운영하면 오히려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마그네슘 공장 규모가 포스코가 운영할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니어서 사업 최적화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마그네슘 판매에 대해 시장이 성숙하지 않는 등 운영상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청년 고용률 높이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

중기 리더·교수 등 순천포럼

순천시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순천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중소기업 리더와 전남 테크노파크 관계자, 관련 대학 교수 등 3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좋은 일자리창출 순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청년 고용률 높이고 좋은 일자리만들기'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순천대 김병일 교수는 지역 일자리 실태와 청년 실업의 문제 등을 제시하면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일자리

창출 극대화 전략 등 일자리만들기 방안들을 제시했다.

포럼에서는 이병천 순천제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참석자 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열린 토론을 이어갔다.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허석 순천시장은 "대한민국생태수도의 좋은 토양 아래에서 창업가와 기업가들이 씩씩으로 발아되고, 훌륭한 나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모든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창업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내 집·내 점포 안전 확인 점검표 배부

순천시는 시민 스스로 내 집, 내 점포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사진)를 전 세대에 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주택용 점검표는 일상 생활에 밀접한 전기, 가스, 소방, 건축 4가지 부분을 누구나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시는 주택용 점검표를 관내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12만부(일반주택용 4만

5000부, 공동주택용7만5000부)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 배부했다.

주택용 자율점검표는 국가안전대진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취약시설 500여개소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과 더불어 개인 주택 및 점포도 시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시민의 자율점검 참여 확대를 위해 '자율점검 실천수기'를 19일까

지 접수하고 있다.

공모전은 자율점검을 통해 발견된 위해 요인을 스스로 개선하고, 이웃에 자율점검을 추천하거나 주변 취약계층 세대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율점검에 적극 참여한 시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각종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점검표를 통해 내 집을 시민 스스로 점검해 주길 바란다"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순천시 안전총괄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리형 태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전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